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세대인 하늘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3.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김윤식 장로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오후근 권사님입니다.
4. '봄철 가정심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당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6일(주일) 황상술 집사님 가정, 5월12일(토) 신경미 권사님 가정입니다.
5. 전교인 봄 야유회를 5월 22일(화) 가평 조종면에 위치한 '모닝 펠리스'(박상우-김민자 집사)에서 가집니다. 지금부터 일정 조정 잘 하셔서 전 교인 모두 참석바랍니다.
6. 교회물품(커피, 종이컵, 전기, 수돗물 등) 사용에 각별한 관심과 절약을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남선교회 모임을 아외카페에서 가집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4월 22일	4월 29일	5월 6일	5월 13일
예배기도(오전)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전도주일	목장주일	유숙정 권사	오후근 권사
주일식사담당	에스더 목장 (오후근 권사)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 목장 (최윤정 권사)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	갈렙 목장 (4/21)	에덴 목장 (4/28)	돌로스 목장 (5/5)	주사랑 목장 (5/1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7월 16~21일에 있을 몽골단기선교를 위해서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봄철 가정심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1장 (통 91장)	다같이
대표기도	유중열 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출 15: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모세의 노래’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다	같	이	
*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전도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264장 (통 198장)	다같이
기도	유숙정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롬 9:19-24	인도자
말씀선포	‘이것이 우리입니다’	허영전도사
기도	허영전도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405장 (통 458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6:60-66 ‘하나님의 영’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8)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월~금) 시 73:1-28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이라’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는 것과 사는 것’

교회 텃밭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빈 땅이라도 생기면 무엇이든 심을 심는다. 종묘상에서 구입해 온 상추며 쑥갓 등 온갖 모종을 나중 먹거리를 기대하며 흐뭇하게 바라다보면서. 이랑과 고랑을 만든 텃밭 위에도 두둑을 쌓고 여러디 여린 모종을 옮겨 심는다. 그러다 온실에서 싹을 틔운 모종이 처음으로 바람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본다. 모종이 바람을 털어내며 ‘앗, 이게 뭐야?’ 낭창하게 몸을 흔들어대는 것만 같다. 그렇게 모종은 때론 바람을 맞고, 한 낮의 햇살을 즐기면서. 가끔은 고개 숙인 채 비를 건디는 날도 있겠지. 그렇게 모종은 온실이 아닌, 지상에서 자기 그늘을 한 뼘 쯤 키워갈 것이다.

새롭게 일군 텃밭의 토양에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모종은 활력 있는 생명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모종이 웃자라도 옮겨 심은 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웃자란 모종은 띄워 위 줄기를 잘라내는 아픔을 겪는다. 그러면 띄임 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온다고 농사 짓는 이들이 귀땀해준다. 그런 걸 보면 모종을 텃밭에 옮겨다 심고서 정착하는 과정이 신앙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번 상상해보라. 머릿속 온실에서만 자란 신앙이 손끝을 통해 세상으로 옮겨지는 구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신앙, 여전히 구습을 쫓는 신앙이라면, 이는 신앙도 아닐 뿐더러 나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온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생명을 계속 해서 이어가려면 부단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 써야 한다. 다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들 그렇듯,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온실을 가꾸는 데만 열심이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모종을 삶에 옮겨 놓는 일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도 수고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내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게 된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스밀 때, 비로소 생명의 꽃은 피어날 것이고, 나아가 그 삶이 줄기를 뻗어 다양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즘 우리는 온실 안에서만 머무는 것 같다. 연약하기 짝이 없다. 새삼 모종 옮기는 일의 놀라움을 생각해 본다.

Written by 허영진